

영재교육기관별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회복탄력성 및 과제집착력 비교

이경미 · 성승민¹ · 장낙한² · 여상인^{3*}

인천송월초등학교 · ¹철산초등학교 · ²공주대학교 · ³경인교육대학교

A Comparison of Resilience and Task Commit between Elementary Gifted Students in Science and Non-gifted Students

Lee, Kyung-Mi · Sung, Seung Min¹ · Nak Han Jang² · Yeo, Sang-Ihn^{3*}

Songwol Elementary School · ¹Cheolsan Elementary School · ²Kongju National University ·

³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compare resilience and task commitment between the elementary gifted students in science and non-gifted studen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32 gifted students belonged to gifted education centers or gifted classes and 147 non-gifted students, all of whom were in the 6th grade. In order to examine resilience and task commitment, a 5-point Likert scale-styl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the subjects. With the aim of identifying the difference between resilience and task commitment among groups,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and Scheffé test. An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task commitment among group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resilienc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belonged to gifted education centers and non-gifted elementary students, and between students of gifted classes and ordinary elementary students,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cientif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belonged to gifted education centers and students of gifted classes. Second, task commitmen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cientif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belonged to gifted education centers and non-gifted students. Third, there were very high correlation between resilience and task commitment among the groups.

keywords : resilience, task commit, elementary gifted student in science, non-gifted student

I. 서론

과학영재의 육성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인적 인프라 구축의 핵심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기에(박미진, 이용섭, 2011)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영재교육은 국가의 지원 아래 양적으로 크게 팽창

하였다.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교육부, 2013)에 따르면 제1차 및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단계를 통해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등의 영재교육기관의 체제가 확립되었고 영재교육 수혜율도 목표치 1%를 초과 달성한 1.76%로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 또한 영재선발 과정 정상화를 위한 교사관찰 추천제가 도입되었고 영재교사 연수와 영

*교신저자: 여상인(siyeo@ginue.ac.kr)

**2015년 9월 30일 접수, 2015년 11월 1일 수정원고 접수, 2015년 11월 30일 채택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제1, 2차 영재교육종합계획 단계에서 영재교육 수혜자의 대부분이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 과학영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영재학급 과학영재를 영재라고 판별할 수 있는지? 일반적인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영재학급 과학영재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왔다(김학준, 여상인, 2014).

영재란 누구인가? 특히 영역 특수성으로서 과학 영재는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영재성을 어떻게 계발하고 발휘하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영재교육에서의 주요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영재교육에서의 핵심과제는 영재를 판별하고 교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판별과 교육의 중요성을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영재를 제대로 판별하여 선발하여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재를 판별하고 선발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류형선, 2013). 따라서 영재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요인 및 방법에 대한 많은 탐색이 이루어져 왔다(정진숙, 최선영, 2015; 송인섭, 2010; 윤경미, 김정섭, 2006). 지금까지 영재를 판별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 온 요인으로는 영재성을 이루는 요인으로 알려진 지능, 창의성, 성격특성 등이 있다. 영재를 정의하거나 판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능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일차적으로 영재를 판별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나(Taylor & Sternberg, 1989), 영역특수성이 있는 분야의 영재 판별에는 단점이 있다(Davis & Rimm, 1998). 창의성 또한 영재성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일반적인 창의성 검사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Davis & Rimm, 1998). 최근에는 영재성을 정의하거나 판별에 적용하기 위해 정의적, 성격적 특성에 관심이 많다. 내적동기, 호기심, 독립심, 개방성, 과제집착력과 같은 성격적 특성(Renzulli, 1986)과 함께 영재들에게 필요한 능력 또는 판별 요인으로 과흥분성, 문제발견력, 회복탄력성 등을 들고 있다(김정희, 이용주, 김동춘, 2014; 김학준, 여상인, 2014; 류형선, 2013; 이신숙, 2013; 이재영, 2012; 이찬

주, 주영아, 2014; 황해익, 탁정화, 강현미, 2014; Gallagher, 2004).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인 회복탄력성은 영재학생 뿐 아니라 일반학생도 모두 성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여건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김주환, 2011). 과학영재들의 회복탄력성은 행복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이병임, 이희수, 류형선, 2012), 인간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는 데, 이러한 스트레스나 실패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과 극복하여 성취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개인적·사회적 결과는 너무도 다르다(이신숙, 2013). 그러므로 영재를 판별하고 선발하여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문적인 능력과 재능 및 학업성취와 더불어 회복탄력성도 함께 고려할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영재의 특성으로서의 과제집착력은 Renzulli(2000)의 주장 뿐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도 중요한 영재의 특성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정문호, 2008; 장정은, 정운숙, 최양희, 김성원, 2013). 과제집착력이 영재성의 중요한 판별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영재교육 및 선발 과정에서는 인지적 능력 위주로 이루어져 영재의 정확한 선발을 위해서는 과제집착력과 같은 정의적 특성을 명확히 정의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장정은 외, 2013).

과제집착력이 영재의 중요한 인성적 특성이라는 연구(박미진, 이용섭, 2011; 장정은, 김성원, 2014; 장정은 외, 2013; Renzulli, 2000)와 함께 과제집착력 또는 과제집착력과 관련이 깊은 요인들에 대해 상관이 있거나 영향을 주는 다양한 연구(박미진, 이용섭, 2011; 신복진, 2007; 이용섭, 신명렬, 2013)가 있다. 또한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김정희, 이용주, 김동춘, 2014; 이신숙, 2013; 이재영, 2012; 이찬주, 주영아, 2014; 황해익, 탁정화, 강현미, 2014)도 많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류형선(2013)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수학 및 과학 영재 선발에서 활용 가능하기에 탐구해본 것 이외에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일반학생 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일 뿐 아니라 학교급에서도 초등학생보다는 중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즉, 과제집착력이 영재의 인성적 특성으로 언급되고, 영재선발에서 회복탄력성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재학생의 특성으로 언급된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초등학생의 영재성 규명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기관별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 간에 회복탄력성 및 과제집착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초등과학영재는 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이하 영재교육원)에 재학 중인 초등과학영재 55명과 동일 지역의 단위학교 영재학급(이하 영재학급)의 초등과학영재 77명이 선정되었고, 다른 요인에 의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학생은 영재교육원 또는 영재학급의 초등과학영재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 중 7개교에서 학교별 20명 내외 정도로 총 147명이 선정되었다.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는 교육지원청별 자체선발평가를 통해 선발되었으며,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는 단위

학교별로 교내 학업성취도, 자체선발평가, 교사관찰 등으로 선발되었다.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영재교육기관별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을 선정함으로써 지역 차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 환경, 학생 개인의 특성 등의 변인에 기인하는 효과를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또한 학년에 따른 영향을 없애기 위하여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은 모두 6학년으로 선정하였고, 남녀의 성비 또한 각 집단별로 남자가 55%, 여자가 45% 정도로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성차의 구성비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표 1).

2. 검사도구

1) 회복탄력성 검사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Reivich & Shatté(2003)의 검사도구를 변안하여 수정·보완한 여러 가지 회복탄력성 검사도구(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신우열, 최민아, 김주환, 2009)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게 소개한 김주환(2011)의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KRQ-53)의 설문 문항과 류형선(2013)의 검사도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게 적합하도록 검사도구의 표현 등을 부분적으로 다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검사에 사용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및 개념은 표 2와 같다. 하위요인은 크게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고, 각 하위요인은 다시 3개의 세부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능력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세부 하위요인

표 1.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대상별 빈도 및 성별 구성 N (%)

연구 대상	성별		계	
	남	여		
초등과학영재	영재교육원	30 (54.5)	25 (45.5)	55 (100)
	영재학급	43 (55.8)	34 (44.2)	77 (100)
일반학생	81 (55.1)	66 (44.9)	147 (100)	
계	154 (55.2)	125 (44.8)	279 (100)	

으로는 감정조절능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이 있다. 대인관계능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말하며 세부 하위요인으로는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이 있다. 긍정성은 앞의 두 능력을 키워주는 것으로 스스로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서를 의미하며 세부 하위요인으로는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가 있다(김주환, 2011; 류형선, 2013). 본 검사에서 사용한 회복탄력성 검사도구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문항수와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회복탄력성

은 총 5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9개 세부 하위요인 중에서 5문항으로 구성된 생활만족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6문항이다. 문항의 신뢰도는 .624 ~ .799로 나타났다.

2) 과제집착력 검사

과제집착력 검사도구는 과제집착력의 구성 요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신복진(2007)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하위요인에 대한 검사도구를 수집하여 구성하였다. 신복진(2007)은

표 2.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및 개념 (김주환, 2011; 류형선, 2013)

하위요인		개념
자기조절능력	감정조절능력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 감정과 건강한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능력
	충동통제력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
	원인분석력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찾는 능력
대인관계능력	소통능력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맺고 오래도록 유지하는 능력
	공감능력	다른 사람의 심리나 감정상태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자아확장력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
긍정성	자아낙관성	자기 스스로의 장점과 강점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생활만족도	행복의 기본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삶에 대한 만족도
	감사하기	삶과 주변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태도

표 3. 회복탄력성 검사도구의 하위요인별 문항 수와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Cronbach's α
자기조절능력	감정조절능력	6	.645
	충동통제력	6	.740
	원인분석력	6	.624
대인관계능력	소통능력	6	.784
	공감능력	6	.728
	자아확장력	6	.719
긍정성	자아낙관성	6	.799
	생활만족도	5	.729
	감사하기	6	.783
계		53	.825

표 4. 과제집착력 검사도구의 하위요인별 문항 수와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Cronbach's α
성취목표	완속목표지향성	5	.892
	수행접근 목표지향성	5	.846
	수행회피 목표지향성	6	.818
책임감	긍정적 책임감	14	.926
	부정적 책임감	20	.883
학습몰입	지각된 도전과 기술의 균형	2	.780
	분명한 목표	3	.845
	집중력	3	.754
	통제감	3	.766
	자의식의 상실	3	.636
	시간의 변형	3	.545
	자기목적적 경험	3	.774
	행동과 의식의 융합	2	.826
자기통제력	자제력	7	.732
	집중력	4	.687
계		83	.973

과제집착력의 하위요인은 성취목표(Achievement Goal), 책임감(Responsibility), 몰입(Flow), 자기통제력(Self-Control)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취목표(Achievement Goal)란 학습자들이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다가가는 방법을 결정하는 행동의 목적을 의미하고(Meece, Blumenfeld & Hoyle, 1988), 책임감(Responsibility)은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성취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의 특징으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이며, 타인과 원만한 관계와 더불어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감정을 의미한다(McClelland, 1985). 즉, 타인의 지시에 의한 행동이 아니므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행동의 결과를 자신이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몰입(Flow)은 어떤 행위에 사람들이 완벽하게 몰입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의미하고(Csikszentmihalyi, 1997), 자기통제력(Self-Control)은 다양한 상황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 감정, 사고 등을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Kim, Murry & Brody,

2001). 본 연구에서도 자기통제력이란 자신의 정서와 전략, 의지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제집착력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검사문항의 선정 및 개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성취목표 검사는 Midgley, Kaplan, Middleton, Maehr, Urdan, Anderman, L. H., Anderman, E. & Roser(1998)이 개발하고 이윤희(2003)가 번안 및 보완하여 사용한 성취목표 검사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책임감 검사는 이상로, 변찬진, 진위교(1989)에 의해 제작된 표준화 성격진단 검사의 책임감 척도 하위 검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하였으며, 학습몰입 검사는 Jackson & Marsh(1996)가 개발하고 김우경과 김응준(2012)이 타당화 분석을 통해 보완한 몰입검사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자기통제력 검사는 Tangney, Baumeister & Boone(2004)이 개발한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Brief Self-Control Scale: BSCS)를 홍현기, 김희송, 김

진하, 김종한(2012)이 수정한 자기통제력 검사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과제집착력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검사문항은 사전검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교육전문가, 초등과학교육 및 과학영재 전공 대학원생이 토의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문항의 내용타당도에 대한 검토와 신뢰도 검사를 하여 총 83문항으로 이루어진 과제집착력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과제집착력 검사도구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세부 하위요인과 문항 수 및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성취목표는 총 16문항이며 세부 하위요인은 완속목표지향성, 수행접근목표지향성, 수행회피목표지향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 수는 각각 5개, 5개, 6개로 이루어져 있다. 책임감에 해당하는 세부 하위요인은 긍정적 책임감과 부정적 책임감으로 구성되며 각각 14개,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습몰입은 총 8개의 세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 수는 지각된 도전과 기술의 균형, 행동과 의식의 융합은 2개의 문항, 그리고 나머지 세부 하위요인인 분명한 목표, 집중력, 통제감, 자의식의 상실, 시간의 변형, 자기목적적 경험은 모두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통제력의 하위 세부요인인 자제력과 집중력은 각각 7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전체의 신뢰도는 .973, 각 세부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545~.926으로 나타났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동일지역에 소재하는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의 초등과학영재 및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작한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 검사도구를 투입하여 총 285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이 중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응답이 다수 누락된 6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279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수집은 영재기관 또는 학급의 담임교사의 협조로 이루어졌고, 설문지에 대한 응답은 수업이 종료된 후에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의 초등과학영재 및 일반학생의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집단 간에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특히, 영재교육기관별 영재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Scheffé로 사후검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에서 Levene의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 내에서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영재교육기관별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회복탄력성 비교

영재교육기관별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회복탄력성은 전체적으로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 간에는 유의한 차이($p < .001$)가 나타났으나,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의 초등과학영재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조절능력은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의 평균($M=3.8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의 평균($M=3.69$)이 높고, 일반학생의 평균($M=3.40$)이 가장 낮았다.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과학영재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초등과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유의하게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세부 하위요인별로는 충동통제력과 원인분석력은 세 집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였고, 감정조절능력에서는 초등과학영재는 일반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p < .001$), 영재교육기관별 초등과학영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인관계능력은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학생의 평균($M=4.16$)이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의 평균($M=3.86$) 및 일반학생의 평균($M=3.70$)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세부 하위요인에서는 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은 세 집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자아확장력에서는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 사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1$)를 보이고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는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중간 정도의 평균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긍정성은 평균이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M=4.01$),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M=3.89$), 일반학생($M=3.74$) 순으로,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가 일반학생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세부 하위요인에서 자아낙관성은 초등과학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 사이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으나($p < .01$), 단위영재학생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의 하위요인인 생활만족도, 감사하기 항목에서는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 대상 학교급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영재와 일반학생을 비교했다는 측면에서 류형선(2013)의 연구 결과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학 및 과학영재 선발을 위한 인성적 평가요소로서 회복탄력성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학고 1학년 학생과 일반고 인문계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류형선(2013)의 연구 결과보다 회복탄력성이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을 더 구별할 수 있는 인성적 평가요소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에서는 류형선(2013)의 연구와 결과가 거의 일치하지만, 대인관계능력과 긍정성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대인관계능력 중 공감능력에서만 차이를 보

표 5. 영재교육기관별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

하위요인	M (SD)			F	p	Scheffé	
	영재교육원 (a)	영재학급 (b)	일반 (c)				
자기조절 능력	감정조절능력	4.02 (.69)	3.73 (.62)	3.50 (.62)	9.716	.000	a = b > c
	충동통제력	3.84 (.77)	3.57 (.58)	3.21 (.59)	23.012	.000	a > b > c
	원인분석력	4.03 (.63)	3.76 (.61)	3.51 (.61)	15.330	.000	a > b > c
	소계	3.89 (.69)	3.69 (.49)	3.40 (.52)	18.564	.000	a = b > c
대인관계 능력	소통능력	3.96 (.65)	3.57 (.65)	3.37 (.71)	15.057	.000	a > b = c
	공감능력	4.19 (.64)	3.90 (.54)	3.75 (.60)	10.795	.000	a > b = c
	자아확장력	4.32 (.70)	4.10 (.69)	3.96 (.73)	5.071	.007	a > c, a=b, b=c
	소계	4.16 (.57)	3.86 (.50)	3.70 (.56)	14.318	.000	a > b = c
긍정성	자아낙관성	3.91 (.54)	3.84 (.56)	3.64 (.70)	4.765	.009	a > c, a=b, b=c
	생활만족도	3.82 (.93)	3.61 (.86)	3.55 (.87)	1.905	.151	a = b = c
	감사하기	4.29 (.64)	4.23 (.69)	4.04 (.76)	3.3714	.036	a = b = c
	소계	4.01 (.54)	3.89 (.56)	3.74 (.65)	4.287	.015	a > c, a=b, b=c
계	4.02 (.45)	3.81 (.50)	3.61 (.51)	14.901	.000	a = b > c	

인 류형선(2013)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의 모든 세부 하위요인에서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회복탄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는 일반학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많이 보이지 않았다. 긍정성에서도 전체적으로는 류형선(201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나 세부 하위영역에서는 류형선의 연구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즉, 류형선의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자아낙관성과 감사하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대인관계능력과 마찬가지로 Scheffé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는 일반학생과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재교육기관별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과흥분성과 사회적 개념을 비교한 김학준과 여상인(201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는 영재성에서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영재라고 판별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영재교육기관별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과제집착력 비교

영재교육기관별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 간의 과제집착력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과제집착력은 전체적으로 영재교육기관별 초등과학영재 및 일반학생 간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집착력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성취목표와 책임감 하위요인에서는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와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반학생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였으며, 학습몰입과 자기통제력 하위요인에서는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의 초등과학영재 및 일반학생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였다.

세부 하위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취목표에서는 수행회피 목표지향성이 일원변량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으나 Scheffé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감의 세부 하위요인인 부정적 책임감에서는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책임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긍정적 책임감에서는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일반학생과 비교해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책임감이 높게 나타났다. 학습몰입의 세부 하위요인에서는 자의식의 상실과 시간의 변형에서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나머지 모든 세부 하위요인에서는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가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학습몰입 점수가 높았다. 자기통제력의 세부 하위요인 중 자제력에서는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가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 및 일반학생에 비하여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집중력에서는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가 일반학생에 비하여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과제집착력의 하위요인과 세부 하위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체적으로 일반학생보다는 영재학생의 과제집착력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위요인에 따라서는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학생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었다. 이는 초등단위 영재학급 교육대상자 선발시 학교 규모가 크거나 경쟁이 치열한 학교는 단단계 전형과 다양한 선발도구를 활용하고, 학교 규모가 작고 경쟁이 낮은 학교는 형식적인 선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 현실(강호감, 정영미, 2015)에서 기인한 영재교육 대상 학생들의 차이가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과제집착력이 영재의 특성 중의 하나라는 Renzulli(2000) 주장을 잘 뒷받침할 뿐 아니라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을 할 때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간 과제집착력에 차이

표 6. 영재교육기관별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과제집착력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

	하위요인	M (SD)			F	p	Scheffé
		영재교육원 (a)	영재학급 (b)	일반 (c)			
성취목표	완숙목표 지향성	4.08 (.83)	3.81 (.81)	3.20 (.93)	25.142	.000	a = b > c
	수행접근 목표지향성	4.08 (.84)	4.00 (.90)	3.38 (1.1)	15.080	.000	a = b > c
	수행회피 목표지향성	3.75 (.61)	3.69 (.87)	3.45 (.94)	3.433	.034	a = b = c
	소계	4.06 (.65)	3.64 (.66)	3.24 (.67)	32.652	.000	a = b > c
책임감	부정적 책임감	4.13 (.58)	3.88 (.60)	3.66 (.73)	10.195	.000	a > c,
	긍정적 책임감	3.76 (.75)	3.56 (.65)	3.30 (.68)	9.875	.000	a = b > c
	소계	3.87 (.59)	3.65 (.48)	3.38 (.60)	16.292	.000	a = b > c
학습몰입	지각된 도전과 기술 균형	4.29 (.72)	3.84 (.82)	3.40 (.98)	21.149	.000	a > b > c
	분명한 목표	4.35 (.82)	3.89 (.76)	3.50 (.94)	19.781	.000	a > b > c
	집중력	4.12 (.87)	3.59 (.83)	3.28 (.89)	18.765	.000	a > b > c
	통제감	4.04 (.85)	3.34 (.85)	3.12 (.94)	21.148	.000	a > b = c
	자의식의 상실	3.22 (1.0)	3.13 (.94)	2.56 (.82)	15.649	.000	a = b > c
	시간의 변형	3.82 (.76)	3.48 (.83)	3.14 (.82)	15.318	.000	a = b > c
	자기 목적적 경험	4.47 (.60)	4.11 (.72)	3.55 (.98)	27.046	.000	a > b > c
	행동과 의식의 융합	4.18 (.85)	3.77 (.93)	3.37 (.97)	16.229	.000	a > b > c
	소계	4.06 (.65)	3.64 (.66)	3.24 (.67)	32.652	.000	a > b > c
자기 통제력	자제력	3.76 (.70)	3.44 (.65)	3.23 (.69)	12.432	.000	a > b = c
	집중력	4.19 (.61)	3.88 (.66)	3.53 (.83)	17.332	.000	a = b > c
	소계	4.02 (.49)	3.73 (.55)	3.44 (.65)	20.531	.000	a > b > c
	계	3.98 (.47)	3.71 (.46)	3.35 (.50)	38.470	.000	a > b > c

가 있다는 김재권(200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과제집착력의 하위요인이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과제집착력을 살펴본 선행 연구(박미진, 이용섭, 2011; 장정은, 김성원, 2014; 장정은 외, 2013)의 과제집착력 하위요인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지만 과제집착력이 영재의 특성의 하나이며 영재성의 수준에 따라 과제집착력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영재교육기관별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의 상관관계

영재교육기관별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회복

탄력성과 과제집착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은 집단 전체에 대한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고, 표 8~10은 각각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 일반학생에 대한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집단 전체적으로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 간의 상관계수는 .821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회복탄력성은 과제집착력 하위요인 중 책임감 항목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제집착력은 회복탄력성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능력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자면, 자기조절능력과 과제집착력 사이에

는 .714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과제집착력 하위요인 중에서 책임감($r = .768$)과 회복탄력성에서 대인관계능력($r = .742$)이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의 상관관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의 경우(표 8),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 사이에는 상관관계수가 .80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과제집착력의 책임감과 회복탄력성의 상관($r = .816$)이 가장 높으며 회복탄력

성의 하위요인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과제집착력과 상관($r = .76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의 경우(표 9),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 사이의 상관관계수는 .792로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과제집착력의 책임감과 회복탄력성의 상관($r = .790$)은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으며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에서는 긍정성이 과제집착력과 상관($r = .72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 집단 전체의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의 상관분석

하위요인	회복탄력성			계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과제집착력	성취목표	.548**	.590**	.569**
	책임감	.690**	.697**	.615**
	학습몰입	.544**	.611**	.546**
	자기통제력	.629**	.590**	.567**
계	.714**	.742**	.682**	.821**

** $p < .01$

표 8.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의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의 상관분석

하위요인	회복탄력성			계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과제집착력	성취목표	.415**	.600**	.590**
	책임감	.753**	.746**	.506**
	학습몰입	.462**	.640**	.388**
	자기통제력	.617**	.595**	.488**
계	.661**	.761**	.570**	.802**

** $p < .01$

표 9.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의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의 상관분석

하위요인	회복탄력성			계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과제집착력	성취목표	.459**	.469**	.549**
	책임감	.727**	.659**	.688**
	학습몰입	.491**	.536**	.573**
	자기통제력	.690**	.509**	.594**
계	.704**	.651**	.721**	.792**

** $p < .01$

표 10. 일반학생의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의 상관분석

하위요인	회복탄력성			계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과제집착력	성취목표	.520**	.569**	.557**	.633**
	책임감	.583**	.641**	.598**	.699**
	학습몰입	.467**	.542**	.556**	.604**
	자기통제력	.540**	.560**	.546**	.631**
계	.666**	.730**	.714**	.810**	

** $p < .01$

일반학생의 경우(표 10),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 사이의 상관계수는 .810으로 매우 높았으며, 이는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의 초등과학영재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과제집착력의 책임감과 회복탄력성의 상관($r = .699$)은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의 초등과학영재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과제집착력과 상관($r = .730$)이 가장 높게 나타나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의 전체적인 상관은 집단별로 비슷한 경향을 보일 뿐 아니라 상관이 매우 높아 회복탄력성은 과제집착력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과제집착력의 책임감과 회복탄력성의 상관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과 과제집착력의 상관에서는 집단별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었다.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경우에는 회복탄력성의 대인관계능력이 과제집착력과 상관이 가장 높았으나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는 긍정성이 과제집착력과 상관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상관계수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의 하위요인에 대한 상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영재학생의 과제집착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회복탄력성의 활용가능성 및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의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을 조사하여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이 초등과학영재의 인성적 특성인지?, 영재교육기관별로 초등과학영재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기관별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에서는 회복탄력성의 전체 점수 뿐 아니라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일반학생,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의 순으로 회복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일반학생보다 초등과학영재가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Scheffé 사후검증에서는 일원변량분석과 마찬가지로 많은 세부 하위요인에서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와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 간에 회복탄력성에서 차이가 나는 결과를 많이 보였지만,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도 다수 있었다. 즉, 회복탄력성이라는 영재의 인성적 관점에서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는 일반학생과 확연히 구별이 되지만,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는 일반학생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영재를 판별하기 위한 요인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과흥분성, 과제집

착력과 같은 관점에서 영재학급의 초등과학영재가 영재성에서 영재와 일반학생의 경계에 있다는 연구 결과(김학준, 여상인, 2014)와 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이 초등과학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요인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영재학급의 초등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영재성 수준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영재교육기관별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과제집착력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에서는 과제집착력의 전체 점수 뿐 아니라 성취목표, 책임감, 학습몰입, 자기통제력의 하위요인과 각 하위요인의 세부 하위요인에서도 일반학생,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의 순으로 과제집착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간의 차이에 대한 Scheffé 사후검증에서도 거의 모든 세부 하위요인에서 세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집착력의 하위요인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지만 과제집착력이 영재를 판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박미진, 이용성, 2011; 신복진, 2007; 이용섭, 신명렬, 2013; 장정은, 김성원, 2014; 장정은 외, 2013; Renzulli, 2000)와 잘 일치하고 있다. 즉, 과제집착력이 영재성 판별에서 높은 변별력을 가지는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영재교육기관별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 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복탄력성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능력이 과제집착력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과제집착력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책임감이 회복탄력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과 과제집착력의 하위요인과의 상관에서는 집단별로 높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이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었다. 비록 상관계수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집단별로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의 하위요인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과제집착력과 회복탄력성의 인과관계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회복탄력성이 과제집착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

영재학생의 판별도구로서 회복탄력성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강호감, 정영미 (2015). 학교 규모별 초등단위 영재학급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26(2), 157-175.
- 교육부 (2013).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 교육부.
- 김우경, 김응준 (2012). 여가활동참여 대학생들의 몰입상태 척도의 타당화. *한국체육학회지*, 51(3), 295-303.
- 김재권 (2005). 영재아의 창의적 성격 특성과 과제집착력 분석.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이용주, 김동춘 (2014). 보육교사의 개인변인,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3), 103-120.
-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고양: 위즈덤하우스*.
- 김학준, 여상인 (2014). 영재교육기관별 초등과학영재와 일반 학생의 과흥분성과 사회적 자아개념 비교. *과학교육연구지*, 38(2), 401-414.
- 류형선 (2013). 수·과학영재선발을 위한 회복탄력성의 활용 가능성. *창의력교육연구*, 13(3), 91-106.
- 박미진, 이용섭 (2011). 과학영재학생의 학습동기와 과제집착력과의 관계. *영재교육연구*, 21(4), 961-977.
- 송인섭 (2010). 영재판별의 타당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단계 복합 판별방법. *아동교육*, 19(4), 49-61.
- 신복진 (2007). 교육용게임에서 학습자의 사회성에 따른 인간 기계 상호작용성이 과제집착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20-131.
- 신우열, 최민아,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의 세

- 가지 요인이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 학보, 26(3), 43-81.
- 윤경미, 김정섭 (2006). 영재판별의 새로운 변인 : 문제발견력. 교육심리연구, 20(3), 587-604.
- 이병임, 이희수, 류형선 (2012). 과학영재들의 회복탄력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창의력교육연구, 12(1), 155-178.
- 이상로, 변찬진, 진위교 (1989). 성격진단검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신숙 (2013).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용섭, 신명렬 (2013). UCC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과학영재 학생들의 메타인지와 과제집착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초등교육, 24(1), 271-290.
- 이윤희 (2003). 온라인 탐구기반학습에서 학습자의 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전략, 학업성취도의 관계 규명,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영 (2012).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회복탄력성,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 대구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찬주, 주영아 (2014). 부모공감 및 회복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대 경험의 조절된 매개효과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6), 121-145.
- 장정은, 김성원 (2014). 과학 영재의 과제집착력 특성 수준 측정을 위한 루브릭 개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4(7), 657-666.
- 장정은, 정윤숙, 최양희, 김성원 (2013). 과학 영재들의 과제집착력 특성 탐색.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3(1), 1-16.
- 정진숙, 최선영 (2015). 영재학생의 시험선발과 자동진급방법에 따른 영재학생의 학업정서, 메타인지능력,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과학교육연구지, 39(2), 278-289.
- 정문호 (2008). 과학영재교육원 교육프로그램 평가 기준 개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현기, 김희송, 김진하, 김종한 (2012). 한국판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BSCS)의 타당화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31(4), 1193-1210.
- 황해익, 탁정화, 강현미 (2014).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인식수준에 따른 소진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9(4), 31-52.
- Csikszentmihalyi, M. (1997). *Finding Flow: The Psychology of Engagement with Everyday Life*. NY: Basic Books.
- Davis, G. A. & Rimm, S. B. (1998).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MA: Allyn & Bacon.
- Gallagher, J. J. (2004). On being a survivor, Poeper review, 27(1). 17-17.
- Jackson., S. A. & Marsh, H. W.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measure optimal experience: the flow state scal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8, 17-35.
- Kim, S., Murry, V. M., & Brody, G. H. (2001).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lf-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an application of second-order growth curve mode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Seattle, Washington, April 10-14.
- McClelland, D. C. (1985). *Human Motivation*. London: Scott, Foresman.
- Meece, J. L., Blumenfeld, P. C., & Hoyle, R. H. (1988). Students' goal orientations and cognitive engagement in classroom activit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4), 514-523.
- Midgley, C, Kaplan, A., Middleton, M., Maehr, M. L., Urdan, T., Anderman, L. H., Anderman, E., & Roser, R. (1998).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ales assessing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Contemporary education psychology*, 23(2), 113-131.
- Renzulli, J. S. (1986). The three-ring conception

of giftedness: a developmental model for creative productivity. In R. J. Sternberg G J. E. Davidson. *Conception of giftednes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zulli, J. S. (2000). The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s a paradigm for school reform.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and technology*, 9(2), 95-114.

Reivich, K., & Shatté A. (2003). *The Resilience Factor*. NY: Breadway Books.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2), 271-324.

Taylor, R. I. & Sternberg, I. (1989). *Exceptional children: integration research and teaching*. College of Education. Florida Atlantic Univ. Boca Roton.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기관별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을 비교하고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은 어떤 상관이 있는지 탐

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초등학생 6학년 55명, 단위학교의 영재학급 초등학생 6학년 77명, 그리고 초등과학영재와 같은 지역의 초등학교 일반학생 5학년 147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회복탄력성 검사도구는 류형선(2013)의 검사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과제집착력은 신복진(2007)이 제안한 하위요인에 대한 검사도구를 각각 수집하여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 집단 간에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분량분석과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에서 일반학생,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 영재교육원 초등과학영재의 순으로 회복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에 대한 Scheffé 사후검증에서 영재학급 초등과학영재는 일반학생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 사이에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영재교육기관별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 간에 회복탄력성 및 과제집착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회복탄력성과 과제집착력의 상관관계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회복탄력성, 과제집착력, 초등과학영재, 일반학생